
Published by the Seattle-Wash. Korean Assoc.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Myung Bo Um, Publisher

Yong M. Park, Editor

Phone: (206) 682-4252

한인회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특별소식

※ 주 씨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 문 수 총영사의 공개서한에 관한 공개 답변



※ 교포들에게 드리는 말씀

※ 해명서

※ 총영사의 공개서한

※ 한인회의 답변

7월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존경하는 교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곳에서 슬기로운 민족으로서 지혜를 갖고,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아낌없는 존경심과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별 호외를 보내게 된 것은, 교민 여러분들이 본회에 어떠한 위기에 처해있고, 사실이 어떠한가를 알려 드려야 할 의무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권리가 있음으로 특별 호외를 만들어보냅니다. 본인이나 전이사, 임원들이 82년도 본회의 업무를 맡아 봉사하게 된 것은, 한인회의 본래의 기능을 살리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므로써, 무엇인가 모순된 점을 한가지라도 바로잡아 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었읍니다. 또한 교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봉사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쁜 이민 생활에서도 맡은바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성실히 봉사를 하고져, 본인을 비롯하여 전이사, 임원들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중입니다. 본회는 1967년 와싱턴주 정부로부터, 비 영리단체로 인가 받았으며, 명실공히 교민사회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읍니다. 지난 4월호 한인회보의 해명서에 밝혔듯이 정치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때마다 본회의 이사, 임원들은 많은 고심을 감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명서를 통하여, 본인과 전이사, 임원들이 협조문제등을 주시게 하여 한국 영사관과의 관계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회칙에 따라, 본회의 이름으로 협조를 못하는 점은 대화로서 이해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또 본회가 협조할수 있는 것은 적극협조하여 주었고, 될수있으면 영사관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하에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하여 왔던 것입니다. 또한 대화를 통한 협의가 되어야만 함에도 교민들 자체적으로 16년전에 설립되어, 교민들을 위한 봉사기관인 본회를 영사관측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기를 강요하다 시피 하며, 본회를 정치단체나 어용단체로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 왔던 것입니다. 또 금번 88서울 올림픽 교민후원회를 조직 하여, 소위 정치단체를 만들어, 본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획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의 정치 성명서를 신문에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이지 않는 압력과 서로간의 협조관계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불편한관계가 있었읍니다. 때로는 중재인을 통해, 강요나 협박도 있었읍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회의 이사, 임원들간의 이간질을 하여 서로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 지장도 초태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터무니없는 중상모략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조용한 한인사회의 분위기를 유지하기위해, 어려움을 참으며, 맡은바 업무에 열중해왔읍니다. 본회의 목적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소신껏수행 한다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야,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어느 누구가 교민을 위한 봉사를 하겠습니까? 교민 사회를 위하여,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협조는 못할 지언정, 압력과 협박이 간접적으로 전해 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민 사회의 대표 기관인, 본회에 이러한 처사가 발생한다는 것은, 전 교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회에서는 영사관 측과의 불편한 관계를 원치 아니하나, 영사관 측이 먼저 소수인에게 공개를 한 이상, 본회로서는 모든 교민들이 이를 알아야 하고, 또한 사실이 어떠하였었나 하는 것도 알 권리가 있음을 참작하여 이번 특별 호외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교민 여러분!

본회는 운영에 있어 기본인 회칙을 준수하며, 순수봉사 기관으로서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회가 순수 목적을 떠나, 교민을 위한 봉사는 안하고, 어용 단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왜곡 선전하여, 본회를 모독하고, 교민 사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저의를 교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하여 이러한 어지러운 일들을 공개치 않으려 하였으나, 영사관 측이 먼저 공개를 하였으니, 몇몇 특정인만이 알아서는 안 되고, 모든 교민들이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의 판단은 교민 스스로가 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번 호외를 보내오니, 영사관 측의 지시 내용의 공한과 이에 대한 영사관 측과 본회의 사실대로 이야기 되었던 점과 해명한 내용을 읽어 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본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1982년 7월 6일

씨애틀 - 와싱턴 주 한인회 회장 엄 명 보 드림.

해 명 서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본인은 씨애틀 한인회의 "정치적행위에" 대한 교민 여러분께 해명해 드립니다. 이미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2, 3개월간 타주의 각 한인 단체와 이곳 워싱턴주의 각 한인단체의 이름으로 한국정부 통일정책, 및 캐나다에 거주하는 최 용혁등의 대통령 암살 음모등에 대한 지지및 규탄 성명서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가 참여치 않았던 점에대해 극소수의 교민들께서 오해가 있는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해명을 회보를 통해 알립니다. 주 씨애틀 총영사관으로부터 2-3차례의 성명서를 보도해줄것을 부탁 받았었으나, 본회가 1967년 비 영리단체로 등록되면서 회칙에 필히 삽입이 되어야 할 조항때문에 부득히 이에 참여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회칙의 제 5조에 의하면 "본 한인회는 본회의 항구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정치행위를 금하며, 어떠한 종교 단체와 (특정 종파를 뜻함)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는 조항이 있는 관계로 이사회와 임원회에서 정치성명서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읍니다. 본 회가 정치참여냐, 순수냐를 본회 전임원은 동의 하였으나, 비 영리단체로서의 특수성을 지켜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정립하지 않을수 없는 한인회의 현실을 알고 넘어가자는 전임원들의 순수하고, 뜨거운 정신에 본인은 이론없이 동조 하였읍니다. 본 회의 전임원은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찬성 하고 지지하오나, 금년도 본회를 운영하는 전임원들은 회칙과 순수봉사의 범주를 벗어난다면 한인회의 본래의 목적과 비 영리 단체로서의 특수성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었읍니다. 본인은 이러한 특수성과 의견의 도를 총영사관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본회의 운영을 "본 회의 회칙" 대로 운영할것을 기본으로 하며, 주체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 수행할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위에 설명드린 이유로 본의가 아니게, 다른단체와 같이 참여치 못했던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옵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진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밀어주시어서, 더욱 발전하고, 명량한 한인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1982년 4월 15일

씨애틀 -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엄 명 보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EATTLE

시애틀(교)725-220

1982. 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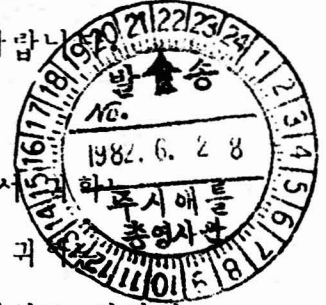
수신 :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 회장

제목 : 1988년 서울 올림픽 시애틀 교민후원회 결성에 관한 건

귀하는 시애틀지역 한인회 회장으로서 1988년 서울국제올림픽대회 행사를 위한 시애틀 교민후원회조직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작심, 지난 6월 24일(오후 5시 30분) 당관을 직접 방문하여 동 후원회 구성을 위한 대안을 지참하였습니다. 당관은 귀하의 후원회 구성안을 검토한바, 동 후원회 조직에 있어서 범교민적인 후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명분과 공정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려오니 재검토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1. 귀회가 발행하는 한인회보 1982년 4월호 5페이지에서 한인회장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즉, 귀회 "회칙 제 5조에 의하면 "본 한인회는 본회의 항구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정치행위도 금하며, 어떠한 종교단체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는 조항이 있는 관계로 이사회와 임원회에서 정치성명서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회가 정치 참여나, 손수냐를 본회의 전임원은 호의하였으나 비영리단체로서의 특수성을 지켜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기본자세를 정립하지 않을 수 없는 한인회의 현실을 알고 넘어가자는 전 임원들의 손수하고 뜨거운 정신에 본인도 이론없이 동조하였습니다. - - - - -



본회를 운영하는 전 임원들은 이칙과 손수봉사의 범주를 벗어난다면 한인회의 본래의 목적과 비영리단체로서의 특수성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본회의 운영을 본회의 회칙대로 운영 할것을 기본으로 하며 주체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 할것을 더짐하는 바입니다." 라고 전 교민사회에 귀하와 귀회의 원칙 및 방침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는 한국의 우방인 미국 정부를 위시하여 100여개의 세계 자유진영국가 및 제 3세계의 비동맹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내 거의 모든 한인회가 성명을 발표하여 지지를 표명한 한국 정부의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을 지지할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2. 본인은 지난 6월 18일 시애틀 지역 한인교포사회유지 관담회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후연회는 세계평화와 우정을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제전이기에 이를 성공리에 끝나게 할 수 있도록 한인교포사회는 범교포적으로 이를 후원해 줄것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이 올림픽대회를 한사코 반대하며 갖은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북한의 악랄한 파괴공작 및 선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폭넓은 후연회의 조직이 바람직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귀하와 귀 한인회는 위에서 지적한 회칙준수의 이유때문에 한인회 내부의 위원회로서 구상한다는것은 크게 모순된 발상일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삼고있는 많은 뜻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수가 없는 형편임을 잘 인식해야 할 줄로 압니다.**

즉, 귀회가 후원회의 주축이 될 때 그 사명을 다 할수가 없음은
너무도 분명한 일입니다.

3. 그러므로 동 올림픽 후원회는 귀회가 제출한 안대로 한인회에
예속된 한 의연회로서 설립될 경우 그 목적달성이 어쩔 뿐만
아니라 귀회의 회칙에도 상충됨으로, 보다 자유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면서도 **범교포적인 성격을 갖는 자발적인 후원회로서 한인회
와는 별개의 존재이유를 갖는 단체로 결정되는 것이 하당하고 바람직
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4. 또한 귀회가 제출한 후원회 후보자 명단은 그 자체의 내용만을 가지고
검토해 보더라도 **대외명분과 공정성에 입각한 기존설정이 모호한바
있다고 봅니다.** 첫째, "후연의연"의 선정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일부 전 한인회장과 전직 및 현직한인회 이사장이 누락되어 있고
(예, 김영진, 조성욱, 강동언, 김성길, 이현기 전회장 및 김현길
현 이사장), 둘째, "후연단체"를 선정한 기준도 모호합니다.
한.미 민주연맹, 쇼오라인 커뮤니티 칼리지 및 하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회장, 국군 예비역장교회등이 빠져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셋째, 종교계 대표로는 각 교파 전체를 다 참여시키려는 것으로서
교역자 협의회회장 및 기독교 평신도협의회 회장으로 대표될 수 있는
종교계의 비중에 대한 균형을 상실한 배려로 생각됩니다. 넷째,
올림픽 후원회가 자발적인 교민단체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위원장은 마땅히 구성멤버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EATTLE

시애틀(교) 725-220

1982. 6. 28.

수신 :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 회장

제목 : 1988년 서울 올림픽 시애틀 교민후원회 결성에 관한 건

귀하는 시애틀 지역 한인회 회장으로서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행사를 위한 시애틀 교민후원회조직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셔도 작년 6월 24일(오후 5시 30분) 당관을 직접 방문하여 동 후원회 구성을 위한 대안을 지참하셨습니다. 당관은 귀하의 후원회 구성안을 검토한바, 동 후원회 조직에 있어서 범교민적인 후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명분과 공정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리오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귀회가 발행하는 한인회보 1982년 4월호 5페이지에서 한인회장으로 다음과 같이 천명하셨습니다. 즉, 귀회 "회칙 제 5조에 의하면 "본 한인회는 본회의 항구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정치행위도 금하며, 어떠한 종교 단체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는 조항이 있는 관계로 이사회와 임원회에서 정치성명서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회가 정치 참여나, 손수냐를 본회의 전임원은 동의하였으나 비영리단체로서의 특수성을 지켜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기본 자세를 정립하지 않을 수 없는 한인회의 현실을 알고 넘어가자는 전 임원들의 손수 하고 뜨거운 정신에 본인도 이론없이 동조 하였습니다. - - - - -



본회를 운영하는 전 임원들은 회칙과 손수봉사의 범주를 벗어난다면 한인회의 본래의 목적과 비영리단체로서의 특수성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 - -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본회의 운영을 본회의 회칙대로 운영 할것을 기본으로하며 주체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 할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라고 전 교민사회에 귀하와 귀회의 원칙 및 방침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는 한국외 우방인 미국 정부를 위시하여 100여개의 세계 자유진영국가 및 제 3세계의 비동맹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내 거의 모든 한인회가 성명을 발표하여 지지를 표명한 한국정부와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을 지지할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2. 본인은 지난 6월 18일 시애틀 지역 한인교포사회유지 간담회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후원회는 세계평화와 우정을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제전이기에 이를 성공리에 끝나게 할 수 있도록 한인교포사회는 범교포적으로 이를 후원해 줄것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이 올림픽대회를 한사코 반대하며 갖은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북한의 악랄한 파괴공작 및 선전에도 대처할수 있는 폭넓은 후원회의 조직이 바람직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귀회와 한인회는 위에서 지적한 회칙문수의 이유때문에 한인회 내부의 위원회로서 구상한다는것은 크게 모순된 발상일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삼고있는 많은 뜻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수가 없는 형편임을 잘 인식해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귀회가 후원회의 주축이 될 때 그 사명을 다 할수가 없음은, 너무도 분명한 일입니다.

3. 그러므로 동 올림픽 후원회는 귀회가 제출한 안대로 한인회에 예측된 한 의원회로서 설립될 경우 그 목적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귀회의 회칙에도 상충됨으로, 보다 자유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면서도 **합의로적인 성격을 갖는 자발적인 후원회로서 한인회와는 별개의 존재이유를 갖는 단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당하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4. 또한 귀회가 제출한 후원회 후보자 명단은 그 자체의 내용만을 가지고 검토해 보더라도 **대의명분과 공정성에 입각한 기준 설정이 모호한바 옳다고 봅니다.** 첫째, "후원의원"의 선정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일부 전 한인회장과 전직 및 현직 한인회 이사장이 누락되어 있고 (예, 김형진, 조성옥, 강동언, 김성길, 이현기 전회장 및 김현길 현 이사장), 둘째, "후원단체"를 선정한 기준도 모호합니다. 한.미 민주연맹, 쇼오 라인 커뮤니티 칼리지 및 하이 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회장, 국군 예비역장교 회등이 빠져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셋째, 종교계 대표로는 각 교파 전체를 다 참여시키려는 것으로서 교역자 협의회 회장 및 기독교 평신도 협의회 회장으로 대표될 수 있는 종교계의 비중에 대한 균형을 상실한 배려로 생각됩니다. 넷째, 올림픽 후원회가 자발적인 국민단체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의원장은 마땅히 구성멤버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선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것임에도 **귀하는 귀회자신을 당연직 의원장으로 자칭한것은 앞서 지적한 한인회의 활동방침에 상충** . . .
될뿐 아니라 단체를 형성하는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5. 이러한 점에서 볼때에 귀회가 제출한 후보자 명단은 당초에 당관이 제시했던 후원회 구성안이 지니는 **귀관성을 구비하지 못함으로서 범국민적인 성격을 결여하고 있는것입니다.**
6.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위에는 여러점을 참작하여 당관이 당초에 제시한바와 같은 후원회 결성이 바람직 한것임을 통보하는 바 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당관의 구상대로 후원회는 우선 전. 현직 한인회장과 이사장, 각교 민단체 대표와 기탁기관 및 종진인사로 구성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후원회 회장은 발기인회에서 회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 극히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추가하여 후원회의 결성과 동시에 동회를 위한 고문으로서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장, 종교계를 대표하는 종교계 대표, 교포실업계를 대표하는 실업계 대표, 취업 기능기술계를 대표하는 기능기술대표 및 영사관을 대표하는 본직 등이 협조, 자문할 수 있도록 조직되는 것이 모든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가장 이상적이며, 이로서 동 후원회가 마땅히 지녀야 할 공정성과 대의명분이 함께 갖추어질것이라는 소신을 귀하에게 통고하는 바 입니다.



7. 끝으로 귀하가 본직 방문시에 언급한 동 후원회 회칙작성은
상기와 같은 범국민적인 후원회가 결성된 후에 전체 구성멤버의
참여하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는것이 올바른 손서가 될
것임을 첨언 하고합니다.

- 유첨 : 1. 시애틀 한인회 작성 올림픽 고민후원위원회 1부
2. 총영사관 작성 올림픽 고민후원회 조직안 1부. 끝.

주 시 애틀 총 영 사



수신 : 주 씨애틀 대한민국 총영사
제목 : 이 문수 총영사의 (시애틀(교) 725-220) 공개서한에 대한관한건.

1982년 6월 28일자 귀 시애틀(교) 725-220의 올림픽 고민 후원회 결성에 관한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88서울 올림픽 씨애틀지역 고민후원회 결성에 관하여,
본인에게 보낸 "제 검토안"에 관한 머릿말에 "후원회 조직에 관한 대안을 제시
하기로 "자연"이라고 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인것입니다. 지난 6월
11일 (82년) 오후 5시 시내 Lotus East Restaurant에서 귀하와 본인및 본회 부이
사장인 김 문규씨와 면담한 자리에서 밝혔듯이, 1982년 1월 10일 오후 5시 본인
과 김 금순, 강 성국두 부회장들과 귀 영사관을 방문하여, 당시의 총영사 업무대
행인 박 부열 영사와 금년도의 업무 협조 관계를 협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부열 영사가 본회에서 올림픽후원회 결성과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추진위원 추천의뢰와 동 행사에 관한 의촉을 받고, 이의 수락을
한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올림픽 후원회 결성은 1982년 5월 22일
한.미수교 100주년 행사를 끝내고, 결성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도 귀하에게
설명했습니다. 위의 설명으로 귀하가 말하는 "자연"이란 문구는 사실을 왜곡
한 표현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와 면담하던날, 귀관과 본회와의 사
이에 업무협조문제로 잠시 불편했던점을 다 해소하고, 앞으로의 협조 관계를, 솔
직하고도 유익한 상부상조를 아끼지 말자고 귀하와 본인이 서로 약속도 했었습니
다. 또한 1982년 6월 9일 오후 7시 40분경 현지 교포 신 호범씨로부터 본인에
게 전화로 귀 영사관으로부터 6월 18일 후원회 결성을 위임 받았다고 하며, 본회
도 이에 참여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귀 영사관 측에서 1월 10일 본회에 의
촉을 하고, 지금에와서 제 3의 인물에게 의뢰한것은 어떻게 된 사정이냐고 본인이
귀하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귀하는 한인회가 회칙에 의거 정치 성
명서를 보도할수 없다하니, 88서울 올림픽 후원회를 별개로 결성시켜, 정치단체로
이용하려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본인과 김 문규 부이사장은 1981년에 영
사관에서 만든 한.미 민주 수호 연맹이란 단체도 있는데, 또 다시 별개의 단체로
제 2의 한인회 같은 규모로 만드는 것은, 16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고민사회를 명
실공히 대표하는 본회로서는 이해할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오후 2시 본회의 이사, 임원회의에서 이문제를 의논한후, 귀하에게 연락
하기로 본인의 뜻을 전한바 있습니다. 1982년 6월 14일 오후 5시 본인과 본회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김현길 이사장, 김문규 부이사장과 김정래 총무부장등 4명이 귀영사관을 방문하여, 귀하 및 박부열영사, 김옥 부영사가 합석한 자리에서 귀영사관의 "후원회안"을 백지화 하고, 지난 1월 10일 당시 총영사 업무대행인 박부열영사가 본회에 의뢰한대로 본회에서 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자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정치서명서 보도를 조건으로 하자고 했으나, 본인 및 이사 임원들이 현 회칙으로는 할수 없으며, 앞으로 회칙 개정등 방법을 연구해보겠다고 답변 했었습니다. 이에 귀하는 귀영사관의 계획을 백지화 하고, 본회에서 후원회 구성을 하도록 철회 수락하고, 빠른 시일내에 인선을 하여, 귀영사관과 다시 협의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본회에서는 인선 문제를 본인에게 일임했으나, 이사, 임원 몇사람이 본인과 함께 인선하여, 범고포적인 성격으로 대체안을 만들어, 귀영사관과 협의키위해 1982년 6월 24일 오후 본인이 귀하를 방문하여, 선정기준, 간부선정및 후원회 운영규칙등에 관한 구상안을 설명하고, 귀영사관에서 인사들을 더 추천하여 주면, 본인들의 자의에 따라 구성을 확정짓기로 한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또한 후원회 첫 모임에서 사업계획, 운영방안, 규칙등을 충분히 회의한후 확정적으로 모든것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귀하에게 분명히 설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다음"이라는 사항에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되게 표현하여, 본인에게 공개서한으로 발송된 것은 어떠한 저의를 나타 낸 것입니까. "다음"의 과 사항에 대한 사실을 조항별로 해명 합니다.

- 다음 -

1. 제 1항의 본회의 1982년 4월호 회보에 보도된 "해명서"는 한국정부의 남북한평화통일 방인지지 표명에 대한 정치성명서 보도를 못하게 되었던 경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동 해명서에 본회 회칙에의거 못하게 된점을 이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며, 본회에서는 본인일 비롯하여, 이사, 임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찬성과 지지를 하오나, 회칙상의 본회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본인이나 전 이사, 임원들이 "평화통일방안"을 반대한것처럼, 표현하고, "지지했다"는 구절은 삭제하여, 사실과 다르게, 왜곡선전 하는것은, 본회를 모독하고, 고민사회의 본얼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야만 할줄 압니다. 한편 본인은 당시 총영사 업무대행인 박부열영사에게 본회의 회칙을 설명하고, 이사, 임원들도 회칙대로 본회를 운영하자고, 결정을 지어, 성명서 보도를 위한 협조를 못하게된 점에 대해 이해를 구 하였었습니다. 이에 박부열영사는 그충을 이해 하겠다

고 하며, "현지 고민사회의 사정을 모르고, 본국에서 자꾸만 이런지시내려와서 곤란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며, 본회의 입장을 이해 하겠다고 표현했었습니다. 회보의 해명서 내용은 위와 같은 뜻이었는데도, 귀하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것은 옳지 못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2. 귀하의 제 2항 내용은 귀하의 말대로 올림픽 정신은 정치를 떠난 세계평화와 우호를 상징하는 제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하여 본회에서는 회칙 제 12조 2항에 의거 동후원회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는 고민사회 전체를 대표하며, 악성군주정부에 1967년 정식 등록이된 정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회칙준수"운을 하며, 고민들에게 "올림픽후원"을 이해시키고, 설득할수없는 행편이라 하는것은, 본회를 인정안하겠다는 말과 일치되는것으로, 이는 공관장으로서 현지 고민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을 모독하는것으로 본회에서는 귀영사관에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3. 귀하의 제 3항의 별개의 단체를 갖겠다고 하는 귀하의 발상이야말로 올림픽정신에 벗어난 것이며, 동후원회 이름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귀하가 공언한 사실은 실로 타당하지 못한 견해이며, 바람직스럽지 못한 발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본회 회칙을 완전히 이해치 못한것 같습니다. 회칙 12조 2항에 의거, 본회내에 동후원회를 설치하여도, 회칙에 상충됨이 없이, 목적달성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4. 귀하의 제 4항의 인선에 있어 공정성및 기준설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1982년 6월 24일 귀하를 방문하여, 범고포적인 기준설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하려고, 여러방면으로 의견 청취를 하고, 각단체들도 포함시켜, 협조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추가인선을 할 예정이고, 귀영사관의 추천을 의뢰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귀하는 협의를 기피하고, 본인앞으로된 공한을 "참조" 사항도없이, 본회와 귀영사관이 인선한 인사들에게 본회의 대체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개발송한 행위는, 분명히 고민사회의 본얼을 훼손 조장하는것으로 이는 공관장으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처사입니다. 또한 귀하가



말로는 국민들이 단합해서 잘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과 행동은 다르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 내었습니다. 한인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 것은 기본정신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회 회칙에 의거 내부에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이 귀하에게 실질적인 운영권은 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감사장(가칭) 제도를 규정하여, 운영위원들이 실질운영을 한다고 하였으며, 회장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운영위원에게 운영의 표를 일임한다고 설명한 사실을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도 첫 모임에서 회의결정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었습니다.

5. 귀하의 제 5항에 대해서는 본회와 귀 영사관과 상호 존중하에 상부상조의 정신을 지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원만한 대안을 결정 짓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일방적으로 귀하의 지시를 따르라는 태도는, 누가보아도 옳지 못한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범교포적인 면을 요구하면서, 어찌하여, 전직 한인회장단등 같은 계층이 범교포적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귀하의 발상이야말로 선정기준에 크게 결여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6. 결론적으로 위에 조항별로 해명 했듯이, 귀 영사관과 본회와 서로 이야기 되었던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되게 선전하려고, 공한을 몇몇인사들에게만 공개한 것은, 본질을 유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왕 공개를 할려면 전 국민이 사실내용을 알아야만 할 줄 압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귀하가 본인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대한 해명 및 답변을 공개적으로 보내며, 이를 읽어본 국민들 자신이 판단을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리하여 과연 귀 영사관의 처사가 옳은 태도 이었는지, 아니면 본회가 잘못 구상한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범교포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문제를 공관장으로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업무의 진전을 지연시키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어지러운 분위기를 조성시켰습니다. 귀하의 신분과 업무한계를 모르는 처사로 비롯된 모든 결과는 귀하가 책임을 져야만 마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7. 귀하는 모든 것은 왜곡 선전을 하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 줄 알고, 전근대적인 관료주의 정신을 버리고,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자세를 유지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는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도 국민총화를 위해,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정의 사회구현"과 "의식개혁운동"에 온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폭 넓은 대 국민 자세를 갖고, 명랑한 분위기가 조성과 국민적 화합을 도모 하여야 함에도, 금번 귀하의 태도는 슬기로우심을 갖고, 어려움을 견디려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8. 귀하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현지 공관장으로 현지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찾아 현지정부 기관등에, 외교적으로 협조해야 함과 동시에,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고,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불철주야 노력하며, 현지인보다 좀더 나은 생활을 하려는 태도 역시 애국이며, 모국에 영광을 안겨 줄 수 있는 데도, 이런 면은 왜면한채 정치성명서만이 애국으로만 간주하려는 의도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야기 되었던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협의할 일은 대화로 하여야 한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회장 앞으로 된 공한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처사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귀하가 본인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대한, 위에 본인이 해명한 내용을 아택과 같이 요약하여 밝혀 두는 바입니다.

- 아 택 -

- 첫째 : 귀하의 공개서한에 의하여 파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전적으로 귀 영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드립니다.
- 둘째 : 귀하가 보낸 공개서한의 내용을 보면, 귀 영사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관료주의적인 의도가 너무 강하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사항을 대화를 의면하고, 공개하는 처사는 국민사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어지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화합의 노력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셋째 : 귀하의 공개서한 내용은 본회가 귀 영사관으로부터 동 위원회 결정의 촉박하여 작업중인 것을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귀 영사관의 일관성 없는 업무수행에 국민들의 반목을 사고, 혼란을 초래 할 뿐입니다.
- 넷째 : 귀 영사관은 국민사회의 대표 기관이며, 1967년 워싱턴주 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정신 등록된 본회와의 관계에 있어, 상호 존중하며, 상부상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지시받기를 강요하고, 공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수행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 다섯째 : 본회는 귀 영사관의 산하단체가 아니고, 워싱턴주 씨애틀 지역을 소재한 국민사회의 대표 기관임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여섯째 : 본회에서 동우원회 결성 준비중 씨애틀지역에 거주하는 모인으로부터, 본인및 임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및 방문하여, 동우원회 구성문제를 괴영사관으로 반납하라는 강압적인 종용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금번 괴학의 공개서한내용이 의미하는 동우원회 결성권의 반납요구와 일치하는바, 전자와 후자의 관계를 묻고 싶지 않으나, 이러한 행위는 명랑한 고면사회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불안감과 암영을 던져 주는 사건이라 생각 됩니다.

일곱째 : 본회의 이사, 임원 간이나, 순수하게 본회를 돕는 고민들과 본회와의 이간질을 즉각중차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회에서는 괴영사관의 업무처리여 있어, 일관성없는 처사에 대해, 실망을 금치못하며, 서로 간에 상호 존중하며, 상부상조를 해야함에도 괴영사관은 사실을 왜곡하는 처사등으로 신뢰할수 없는 본회기를 조성했다고 봅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1982년 7월 4일 오후 긴급 이사,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괴영사관의 금번 처사와 약 2개월간의 본회와의 불편한 관계등을 토의 하였습니다. 긴급회의 에서 괴영사관에 본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기로 하고, 한국정부의 관계기관에도 공개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괴영사관은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기를 당부하여 두는 바입니다.

김명보

씨애틀 - 와싱턴 주 한인회 회장 임명보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Dr. Mansop HAN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